

# 외제시용 안하기 등 실천 필요

## 민족생존권 위협하는 수입개방 저지해야

얼마전 나는 친구와 함께 장충단공원에 갔다가 삼엄한 경찰의 경계에 부딪혔고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신라호텔에 묶고 있던 칼라힐스를 경호한답시고 벌인 소동이었다.

피해해달라고 피해해달라 하는데 쓸수없는 개방이라는 원자탄을 퍼붓기 위해 칼라힐스를 공격하여 보호하는 현정권을 보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하는 씁쓸한 질문을 해보았다. 수입개방을 98% 대미무역자가 무려 1백억달러를 넘어서 지금 수입개방의 물결은 더 거세지고 있다. 서울 시내 곳곳은 편의점의 등장으로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췄다. 학교 근처 신갈에도 수입품판매점이 다섯군데나 들어섰다.

세계 제일의 채무국인 미국은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적인 평화분위기는 미국의 군산복합을 궁지에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위기를 자기 힘으로 풀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입

개방을 강요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김 아래 꺾꽂 못하는 한국이 그 제일가는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날 것이다. 통신·농산물·교육·금융 심지어 사람까지 수입되면 4천만인 실업자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경제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노태우 정권은 수입개방을 막을 생각은 않고 미국의 힘을 빌려 정권안정을 위하여만 급급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수입해야 할 것 하나도 없다. 수입개방을 해도 국민들이 정신개척을 해서 안사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새생활 새질서운동이나 하자고."

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마치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자 대신 민족정기는 지키고 살면 되지 않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개방을 막고 민족경제를 위기에서 건지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제나라 경제가 있고서야 무역이나 교역도 있는 것이지만 제나라 국민 실업자가 만드는 무역은 결국 미국일 뿐이다.

거리에 넘쳐나는 수입품들을 보며 문득 일제시대 때 우리말 우리이름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조상들을 떠올려 본다. 수입개방저지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다. 우리 경제회생은 외래상품 쓰지않기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온 국민과 함께 수입개방저지의 길에 힘차게 나서야 하겠다.

**최재덕**  
(사회대 경영·2)

# 11월주제 '시간'

'시간은 황금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1일의 가치는 내일의 2일 가치가 있다'

모두에 인용한 말은 미국의 건국기 삼대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미국인의 원형이라고 하는 B. 프랭클린의 말인데 이 '황금'처럼 귀중한 시간을 이런 와중에서 과연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하니 연구하고 권리를 가르칠 책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방

# 세화에 꺾이지 않는 정신

관, 묵인 또는 영합의 자세에 대해 참으로 자책감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대 변혁과 격동을 하고 있고 이에따라 우

고 싶은 것은 급변하는 국내의 정치정세에 마음을 전부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한 자세로 학문을 배우고 연구에 힘쓰는 자세도 갖추어야 할

## 학생시대의 황금처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간의 인기와 평판에 영합치 않는 학문적 정신을 배워주기 바란다

리 한반도의 정치정세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통일 운동 등의 여러분야를 자극하는 것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이며 더불어 여러분에게 바라



정동구  
(사회대교수·행정)

사회인으로서 일할 수 있다. 여러분이 불과 4년밖에 없는 재학기간은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공부의 시기다. 때문에 적어도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4년간만이라도 침착한 자세로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

경희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분은 학생시대의 이렇게 황금처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학문을 탐구하고 터득해 사회에 나가주기 바란다. 특히 전문적인 학문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문적 정신, 즉 시류에 아무 영합치 않고 세간의 인기나 평판에 개의치 않고 또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진리탐구자를 자량, 동경하는 정신을 가능한 한 배워 익혀주기 바란다. 아울러 인간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배양하고 성실한 태도를 사교하고 행동하며 솔솔과 진리를 분명히 하는 생활자세를 익혀주었으면 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란 경제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하게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 학원의 주체로서 주인의식 발휘하자

체육과과학 혁명광장을 뜨겁게 매웠던 도서관투쟁의 기억들이 제 가지기도 전에 학교는 선거를 맞았다. 후보들의 공약과 당찬 의지들이 하루가 다르게 학교 벽면을 채워갔다. 모두가 도서관 투쟁에서 우리 앞을 힘차게 나섰던 형들이라 무척이나 흐뭇했다. 3년의 대학생활을 해오면서 2년의 선거를 경험했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2학년이 동년 느꼈던 학생회 사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그 뒷받침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자의인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학생회를 1년동안 이끌어 온 임원들을 뽑는 일이라면 그 관심과 참여는 더 필요할 것이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2호관 민주광장의 간부총회에서 간부들의 확신에 찬 모습과 우리들의 살맛나는 표정들을, 강의실에서 학문에 심취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지 못한다.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더욱 신바람 나는 일인 것이다.

예전의 무관심과 방관의 모습은 우리 경희학원의 모습이 아니다. 새로 불은 대자보 한장을 알뜰히 읽는 모습. 학교를 가득 메우는 방송이나 아침에 받은 선전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 하는 모습. 정을 내어 여기하는 과제표의 이야기 하나하나 들은 모습. 나는 우리 경희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숨죽이는 지성이 아니라 필필 날아 질질을 여기하는 청년임을 경희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자부하고 싶다.

영(경영·86) ▲김상수(경영·88) ▲이민식(경영·89) ▲안현식(경영·90) ▲손동현(영·90) ▲방남철(의·86) ▲고희경(간호·91) ▲하태현(한·87) ▲신종선(한·87) ▲김정진(한·91) ▲조용호(한·91) ▲정만교(치·89) ▲이윤성(성·88)

## 반성과 아쉬움 남긴 대학생들 따뜻한 선배되는 것이 나의 바람

요즘 전기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한창이다. 모든 고향골 경희인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내 자신이 불과 1년전 겪었던 생활이 었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작년 이맘때 입학 원서에 같이 들어있던 학교소개책에서 본 경희의 캠퍼스는 나에게 경희대학교라는 곳에 마련한 기대와 동시에 어떤 낯선 느낌을 주었다. 신입생 행방이런 나는 대학생으로서의 낭만과 자유로움을 느끼기 전에 그러한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접해왔고, 그러한 문제를, 싸움, 동거를 통한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이제는 가능해졌다 하는 자신감을 주었다. 3·4월 이곳 저곳 환영회에 나갔고 첫 시험도 보게 되었다. 5·6월 투쟁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면서 현실과 이

상에 대한 나의 갈등이 시작됐고 그런 것을 겪어 가면서 성숙해가는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의 과정은 누구나 한번쯤 느꼈으리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수원캠퍼스 학우들까지 모여 같은 경희인으로서 일제감을 느끼게 했던 불대동제 마지막 날과, 서로의 꿈을 부딪히면서 공을 쫓았던 자주경희제였던 것이다.

이제 고향골을 되돌던 단풍들 두 거의 떨어진 캠퍼스에 원서접수 하러 오는 수험생을 바라보면서 입학후 그들의 기본 만남보다는 내가 대학 1년의 생활을 너무 쉽게 보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늘 바쁘고 답답한 교실, 입시 위주의 시간표속에서 허우적대며

##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란 성격적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여러면으로서, 어느 한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않고 독자들에겐 알려지지 않았던 분란의 목적이다.

지난 990호 말해봅시다에 게재된 안호빈(사회대행정·1)군의 원고내용에 대하여 수원캠퍼스 학과와 측에서 반론을 제시하고 나서에 따라 독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학과측의 의견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지난 990호 말해봅시다에 게재된 안호빈학생 원고에 대해 학과측은 업무현황설명을 발표했다. 현 학과측은 5시까지 정상업무 하며 퇴근시간은 5시30분이지만 5시이후에 하루 평균 400여 통씩 들어오는 신청서의 분류작업이 행해져야 그날 업무가 마감되므로 분류작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과측은 '5시 이전에는 언제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

홍성대학교수 대만행  
▲홍성화(의대·의학과) 교수=오늘부터 30일까지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차 대만방문 ▲윤엽(의대·의학과) 교수=혈관질환 및 항암요법의 중재적 기술의 최신지견 습득차 다음달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미국방문 ▲이상래(치대·치예과) 교수=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치외방사선학회참석차 일본방문 ▲배종우(의대·소아과) 교수=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신생아학회 최신지견습득에 관해 의학 연수차 일본행

김천고 동문회  
【서울캠퍼스】▲관악·배화고=오는 6일 늦은 5시 경희호프 졸업생총회 ▲성모·동천고=오는 25일 늦은 6시 하이텔베르그 ▲한영·영과고·다음달 14일 늦은 6시 Moscow 졸업생총회 ▲배재·이화여고·다음달 6일 늦은 5시 체대와 녹원 졸업생총회 ▲동대부고=오는 25일 늦은 5시 체대와 녹원 졸업생총회 ▲광주·동신·여고=오는 29일 늦은 6시 녹원 졸업생총회

【수원캠퍼스】▲부산 이사별고=오는 늦은 5시 30분 공대휴게실 ▲김천고=오는 26일 늦은 5시 30분 공대휴게실 ▲단대부고=오는 12월 7일 늦은 5시 강남역분수대

분실자 분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태규(사·88) ▲박민희(사·87) ▲김화정(생물·88) ▲박성근(생물·89) ▲김윤수(지리·89) ▲정재학(화학·88) ▲박현정(화학·88) ▲허용성(화학·86) ▲전준식(법·87) ▲김규규(경제·91) ▲윤용식(경제·89) ▲김영자(경제·88) ▲이상민(경영·87) ▲고대

### 방학특강

**외국어특강**  
개강 → 12월 1일

**독해**  
Korea Herald 사설, Time, Digest

**회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작문법,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유위 1일 4시간 집중코스

**일어**  
일본문화/박성원 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 필름/동성일본어/비즈니스일어

**관광통역 종합반**  
영어과, 일어과  
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SINCE 1961

## 개원 30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 종각역 TEL: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TOEFL GRAMMAR, VOCAB 22000, 영 어 순해 TOEFL, L/C, TOEFL 600, M-A English

미국어 HEARING, 성문종합영어, 성문기본영어, TIME-영작문, 영어 회화, 영 어 순해 TOEFL, L/C, 미국어회화, GRE 2000

일어문법·독해 (초·중·고급), 일어 회화, 일본인회화, 러시아어, 독일어 (초·중·고급), GMAT 700

## 컴퓨터

개강: 12월 2일 (월)

■ 최신 대형 컴퓨터 MV-7800 기종 터미널 교육 및 대형 컴퓨터 실습  
■ 32bit DX 최신 CAD 장비설치교육  
■ C-LANGUAGE 특강  
■ 자격시험 최고합격

프로그래밍과정	기사자격취득과정
여성 OA 취업과정	사무자동화(OA) 과정
정보처리기능사과정	C언어특강

본원은 대형컴퓨터를 설치함으로 정보처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음.

■ 컴퓨터 그래픽/CAD 과정

컴퓨터그래픽	1년·속성 6개월
CAD	6개월

■ 본원은 국내 교육기관중 최신·최대형 컴퓨터실습실  
■ MV설치 400여 초대형 컴퓨터 사용회사 취업의뢰

입학상담: 980-1032~3.4062  
정보처리학원(청량리역 미주상가A동5층)

**김정정보처리학원**

## 운전을 배웁시다

23년 전통·성실한 교육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차과 교육  
② 택이소 무료 운영  
③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④ 외국(이민)출국자 특별환영  
⑤ 실습시간 자유선택  
⑥ 통학버스 무료 운행  
⑦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전수

\*\*\* 컴퓨터 교육시설 원비 \*\*\*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매주 月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 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部 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部 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3